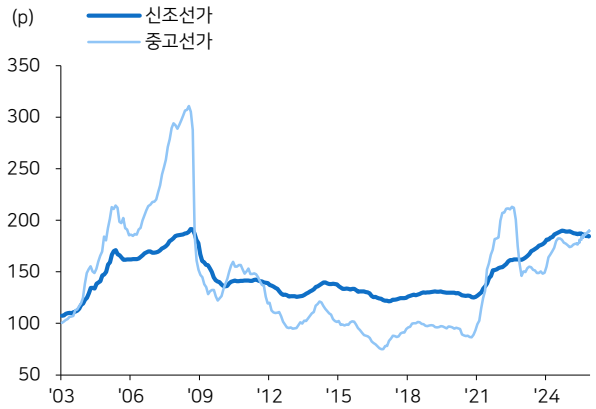
2025. 12. 2 (화)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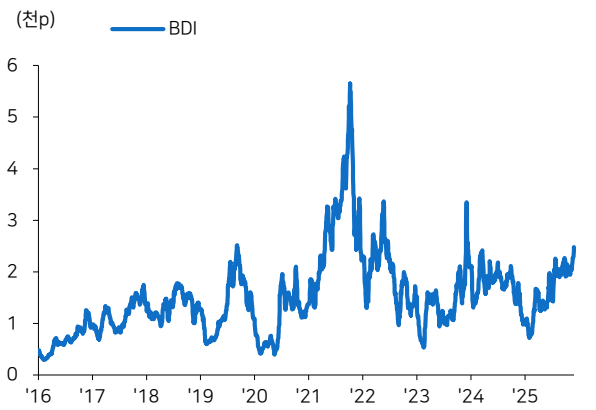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4.3p (-0.3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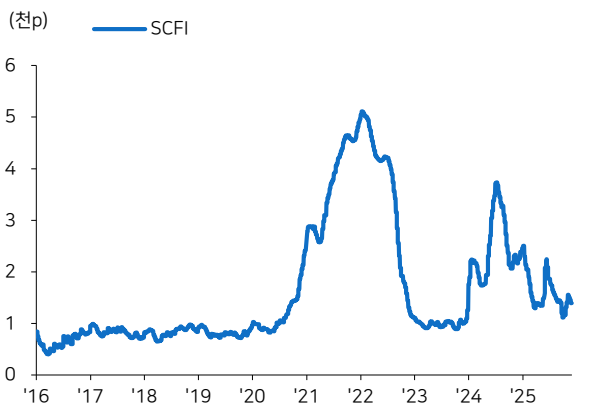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479.0달러 (+1.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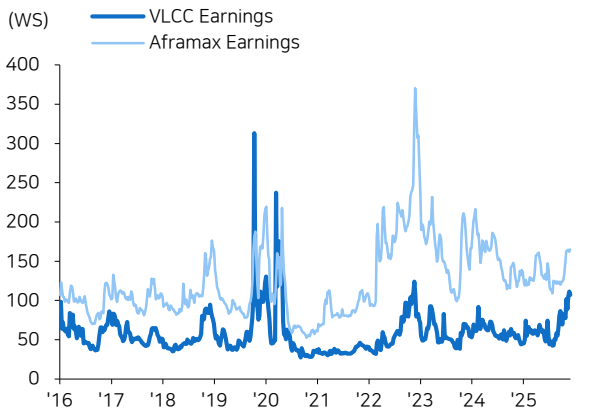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560.0p (+80.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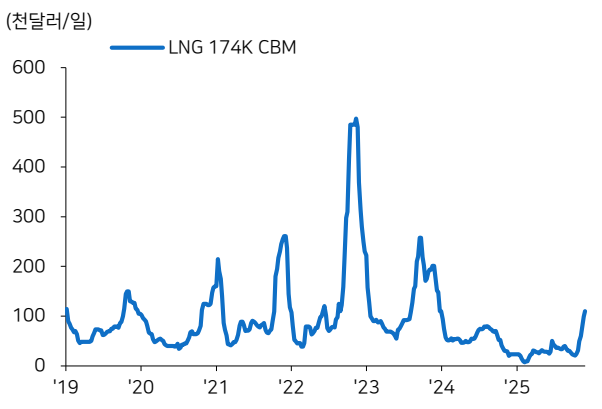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403.1p (+9.6p WoW)



VLCC Spot Rate 107.2WS (-4.0p WoW)



LNG Spot 운임 110.0천달러 (+11.0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한화·HD 현대중공업, 에스토니아 차세대 함정 사업자 '최종후보' 압축 — **더구루**

에스토니아 국방투자센터의 차세대 함정 4척 사업 최종 후보에 HD현대중공업, 한화, 스웨덴 SAAB, 에스토니아 Baltic Workboats가 올라 경쟁하게 됐다고 보도됨. 에스토니아가 약 100m급 대형 함정 2척과 60~80m급 근해 작전용 함정 2척 조달을 추진하며 유럽 외 조선소 발주 가능성도 언급했다고 전해짐. HD현대중공업과 한화는 폴란드 ORKA 잠수함 사업 실패 이후에도 에스토니아 · 그리스 등에서 입찰을 이어가며, 에스토니아가 기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의 K9 자주포 협력 기반을 확대해 해양 분야에서도 수주 기회를 모색 중이라고 알려짐. (https://buly.kr/DwFHWBS)

통합 HD 현대중공업 출범...'수퍼조선소'로 2035 년 매출 37 조원 목표 — **중앙일보**

통합 HD현대중공업이 1일 출범해 양사의 합병으로 글로벌 수퍼 조선사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35년 매출 37조원 달성을 계획한다고 알려짐. 중국과 일본의 대형 조선사 통합 흐름 속에서 HD현대도 함정 · 특수선 역량을 결집해 마스가 프로젝트와 방산 분야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2035년 방산 매출 10조원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전해짐. 양사의 연구개발 · 설계 역량 통합을 기반으로 친환경 · 신기술 선점을 강화하며 쇄빙선 등 특수목적선 시장에서도 진입 폭을 넓힐 수 있다고 보도됨. (https://buly.kr/3CP3qfP)

UK will not finance Mozambique LNG due to 'increased' risks — **Upstream**

영국 정부의 수출신용기관이 Mozambique LNG 프로젝트의 위험성이 너무 크다고 판단하여 TotalEnergies의 200억 달러 규모 프로젝트에 최대 11억 5,000만 달러의 금융 지원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됨. 2020년 당시 보수당 정부는 UK Export Finance(UKEF)의 프로젝트 지원을 약속했지만, 1년 후 가스 액화 트레인 2기가 건설될 예정이던 지역 인근에서 이슬람 반군이 공격을 가한 이후 불가항력이 선언됐다고 알려짐. 한편 불가항력이 10월에 해제되기 전, UKEF는 처음 합의했던 금융 조건을 수정하는 제안을 전달받았다고 전해짐. (https://buly.kr/ChpyoIT)

한화해운·한화오션, LNG 운반선 건조 시작 — **더구루**

한화해운이 한화오션에서 첫 LNG선(H2606) 강재 절단을 진행했으며, H2606은 한화오션이 한화해운으로부터 수주한 LNG 운반선 4척 중 첫 번째라고 알려짐. 한화해운은 한화오션, 필리 조선소와의 연계를 통해 미국 내 자국산 선박 우선주의와 규제에 대응하며 선대 확장을 지속해왔다고 전해짐. 미국은 2028년부터 LNG 수출 물량의 1%를 미국산 LNG carrier로 운송하도록 규정하고 2047년에 15%로 상향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LNG 수출량이 1,000만톤을 돌파함에 따라 한화해운의 사업 기회가 확대될 전망으로 보도됨. (https://buly.kr/1xzkoej)

삼성중공업, 대만 에버그린 본사에 '선박 원격운용센터' 개소 — **연합뉴스**

삼성중공업이 대만 타이베이에서 Evergreen과 공동으로 'Samsung Remote Operation Center(SROC)'를 개소했다고 보도됨. SROC는 원격으로 선박 정보와 장비 상태를 실시간 확인해 효율적인 장비 점검과 유지 보수를 지원하는 육상 컨트롤타워로, Evergreen은 SROC 연계 선박을 늘려갈 예정이라고 전해짐. 양사는 올해 Evergreen 컨테이너선의 미국 Oakland~대만 Kaohsiung 항로 1만km 구간에서 자율운항시스템 기반 원격 모니터링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이번 협력으로 양사가 원격 정기 검사와 원격 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을 확대하며 디지털 전환과 국제표준 대응을 강화할 계획으로 알려짐. (https://buly.kr/EI4nTtZ)

Alternative fuelling figures for November slow as newbuilding market booms — **TradeWinds**

선급기관 DNV에 따르면 11월 대체 연료 추진선 발주는 LNG 이중연료선 10척에 그쳐 전년 동월 대비 크게 감소했다고 보도됨. 2025년 1~11월 누적 발주는 232척으로 2024년 대비 53% 줄었으며, 컨테이너선이 66%를 차지해 시장을 주도했다고 알려짐. LNG 이중연료선의 누적 운항 · 발주량은 메탄올 추진선을 크게 앞서며 대안 연료 시장의 주력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전해짐. (https://buly.kr/B7b9z5t)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